

기고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이 최고의 안전

작고 편리함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 최근 휴대전화,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 일상 곳곳에서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바로 그 예이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충전과 방전 효율이 뛰어나지만, 충격이나 고온·과충전 상황에서는 내부 단락(합선)이 일어나 급격히 발열하고, 순식간에 폭발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OO지역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 내부까지 번져 큰 재산 피해를 남겼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 수칙으로는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정품 충전기 사용 - 값싼 호환 충전기는 과전류 차단 장치가 부족해 화재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반드시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 충전기와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충전 중 무방비 방치 금지 - 장시간 자리를 비운 채 충전하거나, 취침 중 충전은 매우 위험하다. 코드를 뽑아 과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고온 환경 피하기 - 배터리는 여름철 차량 내부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넷째 충격·변형 배터리 사용 금지 -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충격 받은 배터리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교체해야 한다.

다섯째 충전 중 가연물 주변 정리 - 주변에 이불·종이·옷가지 등이 있으면 작은 불꽃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또한 119에 신고 후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사고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점검해야 생활 속 편리함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민기

우리는 지난 호(338호)에서 '자신이 낳은 다섯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린' 루소(프랑스의 철학자)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 행위에 대해 루소 자신은 뒤늦게나마 무한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또 통렬하게 자기를 반성하였다. 하지만 참으로 '독한 아버지'는 동양 쪽에서 나온다.

중국 춘추시대의 유학자이자 공자의 제자인 증자(曾子, 원래 이름은 증참)는 효성이 지극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효도에 대한 책『효경(孝經)』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증점(曾點, 역시 공자의 제자였음)은 아들에게 매우 독하고 모질었던가 보다.

어느 날 증참이 참외밭을 매고 있는 아버지 곁을 지나가다가 참외 줄기를 상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에 화가 난 아버지는 작대기로 그를 때려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지게 만들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놀라 물에 끼얹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정작 그 아버지는 하나 뿐인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더 부끄러워하였다.

"선생님(공자)께서 아시면, 어느 한 제자가 자기 자식을 죽였다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설령 그것이 실수였다고 해도

강성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버 강성철 철학티비



철학자와 자녀(3)-증자와 오바마 대통령

말이다. 과실(실수)이 없게 하려는 것이 선생님의 평생에 걸친 가르침이 아니었던가? 아! 나는 죄인이다."

얼마 후, 의원의 치료로 증자가 깨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참(參)이 효자이기 때문에 하늘이 살려준 것이다."고 칭송하였다. 그런데 증참은 깨어나자마자 고통을 무릅쓰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저의 실수에 대해 아버지께서 힘들어 교훈을 주셨습니다. 손이 몹시 아프시겠습니다."라고 빌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문고를 뜯으며 명랑하게 노래를 불렀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칭찬했다고 한다.

물론 증자(증참)의 행위 자체로만 보자면 참으로 감탄할만한 효자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서 그 아버지 대한 분노가 치밀어오름은 어찌된 일일까?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어찌 그리할 수 있을까? 어찌해서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증자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흔히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다 도둑질해도 씨도둑은 못한다.", "왕대밭에서 왕대 나고, 시누대(악기 재료로도 쓰이는, 가느다란 대나무)밭에서 시누대 난다."는 말들을 한다. 과연 그럴까?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대통령으로

서 200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버락 오바마는 2011년 '미국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아버지 버락 후세인 오바마 시니어는 케냐 출신 경제학자였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태어난 지 3년 만인 1964년 오바마 대통령의 친어머니(유럽계 미국인)와 헤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부친을 '재능이 있으나,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처음으로 재즈 콘서트장에 데려가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농구공을 사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의 부재(不在)가 몰아온 공허함과 아버지의 존재가 선물한 그 충만함이 그로 하여금, '자녀들과 더 함께 있고자 노력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어떠한 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인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두 인물에게서 보고 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작은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전동킥보드 화재 주의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어 철저한 예방이 요구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부산 북구 만덕동 주택에서는 전기 스퀈터 배터리가 폭발해 2명이 숨졌고, 8월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는 같은 사고로 2명

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다쳤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있었다.

완도군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어, 가정 내 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식)는 군민들에게 전동킥보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홍보에 나

섰다.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국가 인증을 받은 안전장치가 장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배터리와 충전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충전할 때는 외출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며, 화재 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의 충전도 삼가야 한다.

또한 종이, 옷가지, 플라스틱 등 불에 잘 타는 물질 주변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안전한 장소를 확인한 후 충전을 진행해야 한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전원 코드를 분리해 과충전을 막아야 하며, 배터리는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장마철이나 우천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부주의한 충전 습관은 곧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안전 수칙을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승준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음력 7월 24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and advice.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xpressway,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